

기도

1.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나의 원수와 대적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받은 고침의 응답을 나눠주세요.

신앙

다윗

'다윗'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다. 다윗은 이름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삼상 13:14).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에 더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시며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날 것을 말씀해 주셨다(삼하 7:13). 우리는 다윗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임을 깨달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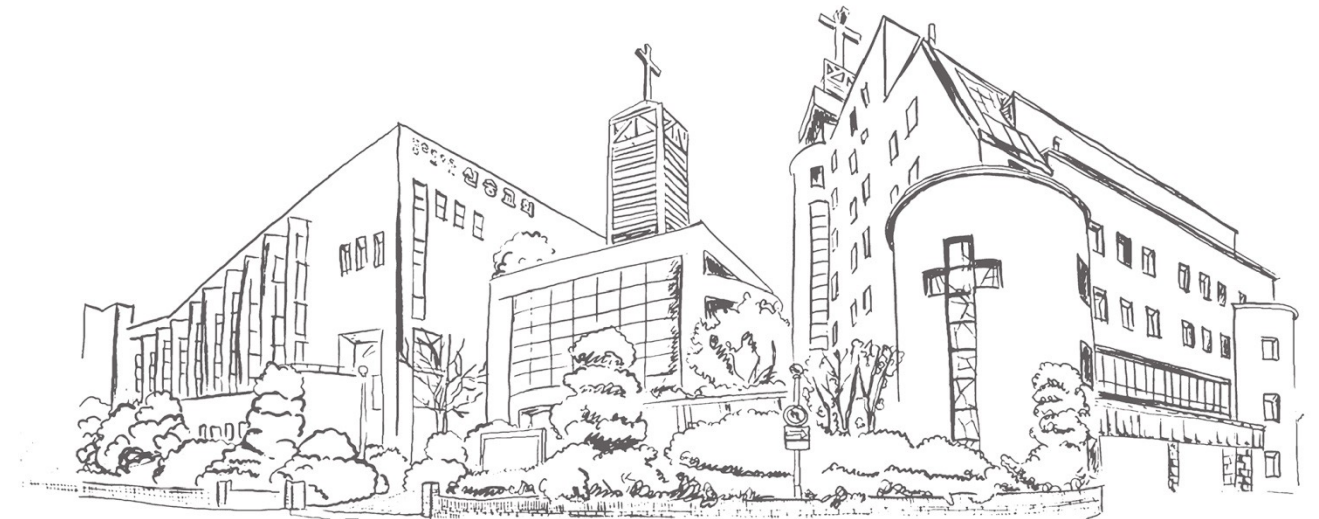


구역 공과

2023년 1월 29일

나를 고치심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나를 고치심

시편 30편 1-7절 (찬28장, 279장)

다윗은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끌어내어 지켜 주시고 고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1-4절).

다윗에게는 다윗을 대적하는 여러 원수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들로 인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갔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고 그것이 사울 왕을 이기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하고 고백하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1절). 반대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값진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결국 사무엘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책망을 들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삼상15:22-23). 우리에게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와 대적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물리치는 것은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이기는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자신이 스스로를 죄로 이끄는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참지 못해 죄의 길로 들어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다윗 자신이 바로 자신의 원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3절). 오늘 우리에게도 ‘스올’과 ‘무덤’ 같은 영적 사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은 죄의 본성을 통해 우리를 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 아래에서 종으로 살게 하고 어둠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어 옳은 길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평안과 소망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빛 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속의 어두운 죄를 밝히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원수에게서 끌어내어 고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를 깨닫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하고 고백했습니다(2절).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힘으로 원수와 대적들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고쳐주심을 체험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4절).

두 번째로는, 주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5-7절).

다윗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5절). ‘은총’은 은혜를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빼앗길 때도 있고 쏟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노염은 잠깐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즉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산 같이 굳게 세워 주셨습니다(7절a). 이로 인해 나라가 강건해졌고 형통해졌지만 다윗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하며 자만했습니다(6절). 그 결과 다윗은 얼굴이 가리워졌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7절b).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생명의 빛이 막혀 심령이 어두워지게 되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산과 같이 굳게 설 수 없고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산과 같이 세워지고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나를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끌어내어 고치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빼앗기거나 쏟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형통할 때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